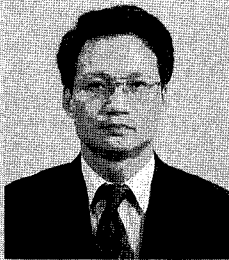


건강한 초생추 생산과 우량한 병아리의 선택 방안



김 태 환
계림 H & C

전 세계적으로 안전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수출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안전성을 앞세우고, 수입 저지 전략으로도 안전성을 우선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상대국가의 해당 축종에 대하여 질병 발생

동향을 주시하면서 최근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축산물 및 유전자가 조작된 곡류를 섭취한 가축에서 생산되는 고기 및 계란 등에 대해서도 유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닭고기와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되고 살모넬라 문제가 거론되며 인수공통 전염병 문제가 언론 및 소비자 단체들에 의하여 제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계산업은 과연 존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토지가격이 비싼데다가 사계절이 뚜렷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이 문제는 양계 산업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양계업을 포기한다면 모르겠으나 결국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이제 새천년 첫봄이 찾아왔다.

산물시세 하락,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의 양계 산업을 지켜내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길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닭고기와 계란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아 틀림 없을 것이다.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그 첫 번째가 건강하고 우량한 특히 위생적인 병아리와 종란을 생산해 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간 업계의 많은 투자와 농림부, 검역원 등의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동남아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되는 것이 문



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산 계란이 태국산으로 둔갑되어 팔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곤혹스럽고, 현재 큰 관심사인 일본으로의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초생추 품질 수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필자의 소견인 바, 이는 종란 및 초생추의 품질 향상, 높은 수준의 사양 관리 및 위생적인 사료 생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봄에 파종하는 씨앗격인 초생추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량한 초생추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원종계 농장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

원종계 농장(국내 육종회사, 종계 판매업체, 계열업체)의 방역 위생 수준은 그것이 한국 양

계 업계에 끼치는 영향으로 볼 때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원종계 농장은 품질 1등급 업체라야만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양계 선진국의 육종회사들은 특정 질병 방역에 실패한 방역 담당 책임자는 즉시 해고하여 책임을 묻는다고 들었다.

여러 비용 중에서 방역에 대한 투자 및 비용은 아끼지 않고 담당 책임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이 확인되면 국가 차원에서 살처분 및 후속조치를 해주고 있고, 살모넬라나 마이코플라즈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함으로써 종계 병아리에 난계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계열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원종계가 생산한 종계 병아리가 살모넬라나 마이코플라즈마 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 종계를 사육하는 계약 사육 종계장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투약비가 증가하며 또한 살모넬라나 마이코플라즈마균을 보유한 종란을 생산해 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살모넬라나 마이코플라즈마에 오염된 병아리를 부화시켜 실용계 사육농장에 보내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육성적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원종계 1마리는 실용계 몇천수에 영향을 미치는 고로 산란계, 육용계 할 것 없이 원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과 통제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NPIP 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모든 원종계 농장이 추백리 및 티푸스균 부재, MG 및 MS 음성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철저히 관리 및 통제를 해야만 양계 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수월해지고, 우리의 계란과 닭고기가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2. 종계 사육농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종계 도입수수는 연간 D-line 기준으로 10여만 수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전체 종계업체 및 실용계 사육업체에 비하여 규모가 아주 적으므로, 원종농장 스스로의 노력 및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 기관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면 우량한 품질의 종계 초생추를 생산해 낼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종계 사육농장(특히 육용종계 사육농장)은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 바, 현실적으로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원종계 농장이 6~7년전에 비하여 대단히 위생적인 종계 초생추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종계 사육 농장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훌륭한 종계 생산성이 기대되고 위생적이며 우량한 품질의 종란과 초생추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원종계 농장과 품질 선택을 잘 해야 한다.

가. 정부의 품질 1등급 인증 업체로부터 종

계를 공급 받는다.

나. 원종계를 강제 환우하지 않는 업체에서 공급받는다.

다. All-in, All-out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해당 품종이 외국에서 난계대 질병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마. 해당 품종이 국내에서 난계대 질병이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바. 종계를 입추하면 일정 수수를 연구기관, 대학교, 국기가관 등에 의뢰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

2) 종계장을 All-in, All-out 체제로 전환시킨다.

3) 육성 전용 농장을 운용한다.

가. 성계 농장과 분리되어 있는 곳에 18~20주령까지 사육할 수 있는 육성 전용 농장을 운용한다.

나. 육성 전문 위탁 농장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농장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 무창계사가 방역관리에 유리하다.

4) 살모넬라 대책을 수립한다.

가. 추백리 검사를 철저히 한다.

나. 살모넬라 멸균 사료를 급여한다.

다. 쥐, 고양이를 박멸한다.

라. 폐사계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마. 경쟁적 배제 원리를 이용한 제제 사용을 검토한다.

5) 마이코플라즈마 대책을 수립한다.

가. MG 음성인 종계 초생추를 공급받는다.

나. 일정기간 이후에 야외 MG에 감염되는 농장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여 야외 MG 감염 예방 및 MG 난계대 전파를 차단

시켜 준다.

3. 부화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의 경우 부화장에서 자가 종계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부화장(계열업체 포함)에서는 종계 위탁사육방식 혹은 종란을 구매하여 초생추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종란 품질이 부화율 및 초생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부화 수익성을 높이고 실용계 농장과의 분쟁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 좋고 위생적인 종란의 구입이 중요하다.

살모넬라(추백리, 티푸스) 양성이거나, 평소 호흡기 질병이 잦아서 항생제(항균제)의 사용량이 많은 농장인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으로 의심되는 바 이런 종계장에서 구입한 종란은 부화율이 저조하고 실용계 초생추 품질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살모넬라에 감염된 초생추는 폐사가 많이 될 것이며, MG에 감염된 초생추는 백신접종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며, 약품비용증가 및 사료 효율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화장으로서 추후 제값 받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부화장에서 초생추 품질 향상을 위하여 유의할 점 몇가지를 제시코자 한다.

- 1) 추백리 확인검사 결과 청결한 종계군에서 생산된 종란을 구입한다.
- 2) MG 음성인 종계군이나 MG백신을 접종한 계군에서 생산된 종란을 구입하여 부화시킨다.



3) 발생기에서 초생추 발생 작업시 포르말린 개스에 너무 오랜동안 높은 농도로 방치시켜 두면 상부호흡기도의 섬모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4) ND백신 분무 접종시 입자 크기가 규격에 맞아야 하며, 가을부터 봄까지는 분무 접종후 털이 완전히 마른 후에 출고한다.

5) 초생추 보관실은 반드시 별도로 있어야 하고, 습도·온도 조절장치가 필요하다.

4. 실용계 농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0여년전부터 종계업계의 투자 및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초생추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거래하는 부화장 수준에 맞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며, 품질 차이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

어져야 종계장과 부화장이 현 수준보다 더욱 품질 개선 노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용계 사육농가에서도 초생추 품질 유지를 위한 초기 관리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1) 육추용으로 샷갯형 육추기(개스 육추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열풍기를 사용하는 농장에서는 초기 습도 조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병아리가 입추 초기에 많이 폐사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탈수에 의한 아사(굶어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살모넬라 및 MG 음성인 병아리를 구입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5. 사료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웃 일본의 산란계 농장에서 살모넬라 음성인 계란을 생산하여 고가에 팔고 있는 것과,

양계 선진국들의 사료 위생에 대한 의식 수준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는 상당수의 사료회사에 대하여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제는 계란과 닭고기 모두,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는 기본이고, 식품안전성 제고 수준의 생산 및 판매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려면 사료 회사의 협력이 절대적일 것인 바, 살모넬라 멸균은 물론이고 마이코톡신과 같은 유해 성분을 제거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양수준을 맞추고, 각종 원료를 배합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국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하나 사료 위생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양계업자들의 중론이고 보면 이제 사료업계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계**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주간 양계속보

-주단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단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으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